

성당을 떠나시기 전에 중심제대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(7). 이 그림은 M. Altomonte의 작품으로,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한 절름발이를 치유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표현한 작품입니다. 그리고 잠시 이곳에서, 4세기 이래로 성 베드로 성당이 힘써온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치와 굳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성당 밖으로 나가셔서 성당 광장 주변을 한번 둘러 보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은 평온하지만, 동시에 역동적인 성당의 모습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.

R. Weyer의 부조 작품(14)은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베드로 성당의 전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성당 뒤편 아치형 구조물에는 Mattielli의 성 미카엘 천사와 성 베드로 사도(15)의 조각상이 있습니다. 성당 정문 위편(1)에는 A. Altomonte가 경납(硬蠟, hard lead)을 이용해서 만든 조각작품들로 꾸며져 있는데,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.
 “흑사병에 대한 황제의 서약을 기억하며”

거룩한 삼위일체 형제 재속회가 이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, 이 성당은 1733년에 완공되었으며, 같은 해 축성되었습니다. 1970년에 당시 빈 교구장이었던 König 추기경이 이 성당을 성직자치단 Opus Dei에 위탁하셨습니다.

Rektoratskirche St. Peter

A-1010 Wien, Petersplatz; Tel.: +43/1/533 64 33

E-Mail: peterskirche@utanet.at

www.peterskirche.at

Erste Bank

Kto. Nr. 000-51292, BLZ. 20111

BIC: GIBAAW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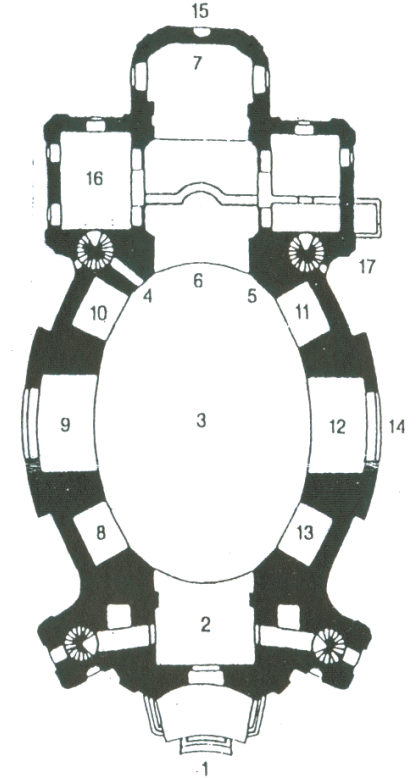
IBAN: AT482011100000051292

빈 성 베드로 성당

소(小) 성당 안내서

평면 안내도

1. 성당 정문
2. 현관 - 오르간
3. 천정 벽화
4. 강론대
5. 성 요한 네포묵 제대
6. 황제 레오폴드 1세 문양
7. 중심 제대
8. 성녀 바바라 제대
9. 성 세바스티안 제대
10. 성 가정 제대
11. 성 미카엘 제대
12.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제대
13. 성 안토니오 제대
14. 칼 대제의 부조상
15. 성 미카엘상과 성 베드로상
16. 제의실
17. 강론대 입구



베드로 성당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!

매년 이 성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€ 120.000 가 필요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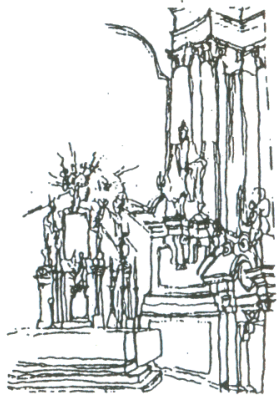
이 성당을 위해서 기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

성 베드로 성당*

(*일반 본당이 아니라, 세례나 혼인 혹은 기도를 위한 성당)

현재 여러분은 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서고 있습니다. 이 곳을 방문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. 이곳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. 로마시대, 이곳에 빈의 첫번째 그리스도교 성당이 건축되었고, 후대에 이르러 두개의 회랑을 갖춘 로마식 형태로 증축되었다가, 18 세기에 Lukas von Hildebrandt 에 의해 현재 모습의 성당으로 개축 되었습니다. 1600 년 이상 이곳에서는 매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.



죄송하지만,

둘러보실 때 이곳이 하느님의 성전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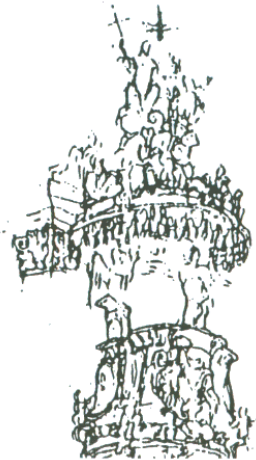
기도하는 곳을 잊지 말아주십시오!

경건하고 조용한 가운데 둘러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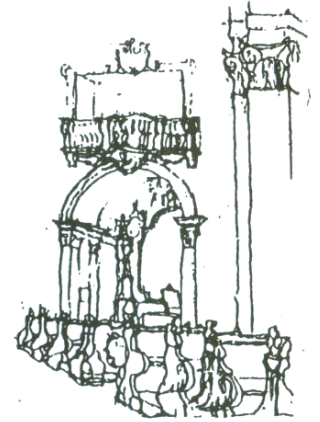
이 성당의 장엄함을 느끼시려면

시선을 위쪽으로 향해 보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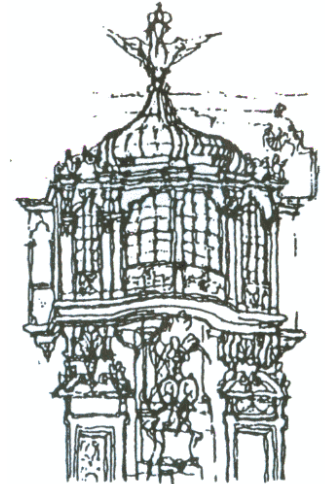
여러분은 이 곳, 바로크식 성당의 중심 제대(7)와, 화려한 강론대(M. Steinl, 4), 그리고 아름다운 천정 벽화(J.M.Rottmayr, 3)와, 성당 안 곳곳에서, 가톨릭 신앙의 핵심을 표현하고 상징화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성당은 초창기부터, 그리고 삼위일체 공경이 널리 퍼질 무렵부터, 성모 마리아를 공경해 왔기 때문에, (빈 최초로 마리아 기도모임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.) 여러분은 곳곳에서 성모님의 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,



중앙제대(7) 감실 위, Kupelwieser 가 그린 „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“, 현관 옆 우측 제대 위의, „마리아의 성심“(19 세기 같은 화가, 13), 빈 출생의 S. Rosenstingl (1766)이 작업한 아름다운 „영원한 도움의 마리아“(9), 교황 레오 13 세께서 하사하신 „좋은 충고를 주시는 어머니 마리아“(11)가 있습니다. 또한 천정 벽화에는 „천상모후의 관을 받으시는 마리아“(3), 그리고 강론대(4) 반대편, 성 요한 네포뭉 순교상 위에는, Lorenzo Mattielli 가 제작한 Bunzlau(폴란드서부)의 „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“(5)가 있습니다.



M. Steinl 은 성당 내부(장귀틀 포함)를 꾸미면서, 성당 안이 더 포근하고,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여러분은 아마도 중앙 옆제대, 곧 M. Altomonte 의 성가정 제대(10)와 J.G.Schmidt 의 성 미카엘 제대(11) 아래에 있는 성인 유해에 관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. 이 유해는 Kollonitz 추기경 (1733)이 로마의 카타콤바에서 모셔온 두 분 순교자의 유해로, 당시 오스트리아 복식을 갖춘 채 안치하였습니다. 성 가정 그림(10) 아래에는 2002 년 성인품에 오르신 호세 마리아 에스끄리바 (Opus Dei 창립자)의 초상이 놓여져 있습니다.



성당 위쪽을 쳐다보십시오: 아름다운 천장벽화(3)와, 풍성하게 치장된 창문들, 그리고 그 아래 둘레에는 J. G. Schmidt 가 작업한 사복음사가와 네 분의 라틴 교부들, 또한 그 정면에는 레오폴드 1 세의 제국 문장과 모토(6)가,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름다운 오르간(2)이 있습니다.

